

鍼灸와 動物

趙 興 烈

中央家畜病院

침과 뜸은 東洋醫學의 一部로서 科學的인 根據가 없는 迷信的인 療法이라 하여 많은 蔑視를 받으며 數千年傳來되어 왔다. 現在에도 野蠻的인 療法이라 하여 鍼과 灸의 原理를 無視하거나 否定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原來 鍼灸의 起原은 우리나라라고 한다. 이것이 中國에 가서 다시 우리나라에 傳來되어 왔다는 歷史的事實이 考古學者들로부터 규명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소칭장이라 하면 無識層에 屬하여 理論을 알 수 없고 先祖로부터 傳來되어 오는 術法으로 動物의 疾病治療에 臨해 왔다.

科學文明이 極致에 이른 現下 理論 없는 施術에 의탁함이 만무하다. 이러한 關係로 蔑視賤待를 받아 온 것만은 事實이다.

우리 東洋醫學의 卓越한 神의術法이 있었으나 西洋醫學이 潮水와 같이 밀려들어와 우리의 日常生活에 깃들리게 되었으니 知性이 極致에 이른 오늘날의 사람들은 東洋醫學의 神秘性을 忘却하고 西洋醫學에만 依存하니 東洋醫學의 으로 볼 때 한심스럽다. 그렇다면 東洋醫學이 不治의 病도 無難히 고치니 神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現下 우리나라에서는 鍼灸法 조차 法制가 없는가 하면 日本의 境遇는 鍼과 灸를 專攻하여 그에 關한 博士學位를 받은 世界的인 高名한 醫師가 많은가 하면 「프랑스」 西獨, 「네델란드」 같은 데서는 鍼灸로서 患者를 널리 公開治療하고 있다고 한다.

鍼은 興奮作用으로 知覺喪失의 解消, 鈍麻, 痲痺 解消시키는 作用이 있고 抑制作用으로 神經으로 因한 痛症, 諸般痙攣의 制止作用 또한 反射作用으로 炎症, 出血, 水腫 등에 刺戟으로 血液循環을 促進시킨다. 其外에도 刺鍼으로 白血球와 赤血球의 增強으로 生體에 많은 有益을 주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鍼灸는 科學的인 文明된 治療方法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一部層에게 이 原理가 왜 蔑視되어 왔던가? 거기에는 몇 가지 理由가 있다. ①

一定한 研究나 教育過程을 거치지 않은 것, ② 消毒도 없이 머리에 비벼서 刺針했던 것, ③ 鍼은 本來에 銅鐵製의 굳은 것으로 刺針함으로 生體에 無理가 있었던 것, ④ 正確한 刺針部位에 刺鍼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因하여 우리들의 祖上들에게 鍼에 對한 “이미지”가 危險千萬인 治療法으로 認識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獸醫界에서 20餘年間 臨床에 臨해 오던 중 第一로 難處에 逢着함이 神經系統의 發作이었다故로 이에 善策이 없을까 하여 百方으로 神經鎮靜鎮痛劑를 使用하여 보았으나 神通한 成果를 거두지 못해 或우리들의 祖上들로부터 傳來해 오는 漢醫學中 鍼灸術로서 方法이 없을까 하여 斯界에 投身하게 되었다. 3~4年間 研究하며 實地神經疾患畜에 適用하였던 바 神祕의 效果를 거두게 되었다.

어느날 當家畜病院에 來院한 개를 진찰한 結果 distemper로 因한 後軀痲痺였다. 畜主는 치유될 可望이 없으면 버리겠다기에 筆者가 이런 病症에 對한 鍼灸術을 研究中이라고 말하니 研究用으로 개를 주고 갔다. 筆者는 이를 引受하여 鍼으로만 施術기로 했다. 當初 完全後軀痲痺였던 것이 5日째 일어서게 되더니 1週日째 조금씩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2週日間 治療하였더니 完全步行 90% 程度 自由롭게 運動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 結果로 筆者는 自信을 갖고 神經系疾病에 對한 鍼術療法으로 治療에 臨하게 되었다.

世上에 存立되어 있는 數많은 制度 어느 하나인들 所重치 않은 것이 있으랴마는 其中에서도 最貴의 生命을 다스리는 醫術은 더 할 나위 없다. 더우기 東洋醫學의 그 方便으로 최첨경인 鍼術을 꼽을 것이다. 이는 宇宙生成發展의 哲理에 根據하였고 마땅히 理致에 맞는 操作이 뒤따라야만 비로서 適中을 期할 수 있는 最上神妙의 境地가 되기 때문이다.

4~5千年의 鍼의 歷史가 至今에 와서 光石 같이 빛나게 되어 只今에 이르러 東洋은 勿論 西歐一帶에서도 鍼灸의 神妙를 體得한 人類醫道 一大革命이 惹起됨을

뵈지 못하고 있음이 現實이나 鍼術을 兼한 韓國醫師의 評을 들어 보면 醫師라 부르지 않고 神醫라 부른다고 한다. 現代醫術로 不可能한 難治病도 鍼으로 成果를 거두니 말이다.

某外科醫師의 子弟가 運動하다 허리를 다쳐서 下半身麻痺가 왔는데 自己病院에서의 加療는 勿論 有名한 外科 또는 神經科 醫師를 찾았으나 成果를 보지 못하고 病상에 누어 起居의 自由를 잃고 있는 患者를 某鍼灸醫師가 于先 一回의 施術로서 일어서게 되어 用便을 自由롭게 보게 되었고 一週間 치료를 계속하여 完治되었으니 神妙라 아니할 수 없겠다.

臨床에 臨하여 極度로 쇠약한 患者에게 健畜의 에너지를 移住시켜 질병치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勿論 輸血에 못지 않은 成果를 거두고 있으니 큰 成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鍼術의 利點은 ① 于先 原價가 經濟的이라는 點, ② 큰 施設이 必要치 않은 點, ③ 患者에게 큰 苦痛이 없는 點, ④ 施術이 容易하다는 點, ⑤ 副作用이 輕소한 點 등이다.

이로 보아 國家的으로도 貢獻하는 바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研究가 要求되는 바이다.

(釜山市 西區 土城洞 1가 8번지, ㉔ 2645)